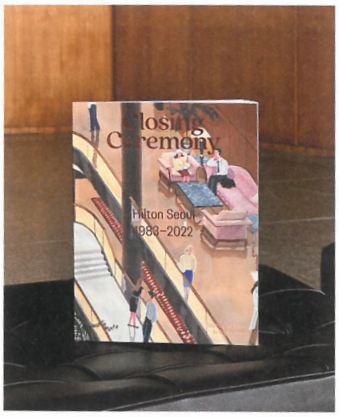
08

2024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서울국제도서전이 주관하는 2024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최종 선정작 40종을 지난 4월 공개했다. 이 중 해마다 디자인계가 주목하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10종은 5명의 심사위원이 독창성과 가독성, 편집 구조 등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아름다움'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해석하는 디자이너의 태도에 집중해 심사한다. 심사평 일부를 발췌·편집해 올해 선정작들을 소개한다.

글·정리 박종우 기자

주최 대한출판문화협회
주관 서울국제도서전
후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협력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독일북아트재단
심사위원장 안병학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심사위원 권민호 PaTI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 마루, 김태균 코쿤북스 대표, 김형재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박유선 플레인앤버티컬 대표



〈클로징 세레모니: 힐튼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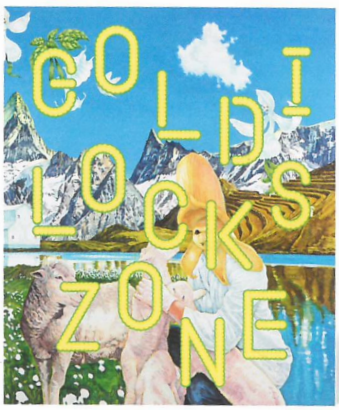
"〈클로징 세레모니: 힐튼 서울〉은 40년간 이어왔던 힐튼 서울의 역사를 담았다. 이 책은 호텔의 과거와 현재의 풍경을 한곳에 담아 독자를 초대하고 그 안을 거닐게 한다. 책은 그 외형부터 다루는 건물의 나이와 층수를 자신의 가로와 세로 크기로 삼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연상시키는 또 하나의 쪽 번호는 현재 내가 어느 층에 있는지 확인시켜 준다. 호텔이라는 특별한 공간은 머무는 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안겨 준다. 이 책은 그 특별한 경험과 감정을 성공적으로 담아낸다."_권민호

디자이너 곽민구·이세정
출판사 메이커메이커

〈한국퀴어영화전집-영문판〉

"퀴어 콘텐츠를 담은 대부분의 출판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도구와 거칠고 조악한, 생생하고 직설적인 시각적 표현이 주로 쓰인다. 이경민은 이러한 형식을 직접적으로 차용했다. 어떤 북 디자이너도 자신의 책을 일부러 '못생기기'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 점에서 이 책은 간명하고, 짓궂고 의도적이며, 발랄하고 상쾌한 태도와 미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_김형재

디자이너 이경민
출판사 활동사진



〈Goldilocks Zone〉

"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형식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고, 아무리 디자인이 화려하고 도드라져도 책의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좋은 평가가 어렵다. 하지만 이 책은 이 두 가지를 충족한다. 과감한 색감을 도록에 적절하게 구현함으로써 최적의 상태를 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디자이너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다.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 형식의 특별함이 모든 면에서 절묘하게 잘 녹아 담겼다."_안병학

디자이너 김성구
출판사 파운드리 서울

〈2666〉

"특별히 실험적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그다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정의 존재 이유에 감탄스러울 만큼 조화로운 작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아름다운 벽돌로서, 최근 유행처럼 출간되는 여타의 '커피테이블 북'들과 비교해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 준다."_김태균

디자이너 함지은(열린책들)
출판사 열린책들